

지역 소외계층 위한 먹거리 한마당 열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자연음식문화원(대표 박인순)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먹거리 한마당을 벌였다.

자연음식은 문화원은 11월 21일 생활 음식 전문가 대전 영선사 법승 스님을 초청해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먹거리 한마당'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청이 후원하고 (사)자연음식문화원이 주최한 이번행사는 음식의 고장 전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대안운동으로서 사찰음식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주민 중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소외계층 장애인학부모를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먹거리 한마당은 이주민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자연음식을 소개해오고 있다.

법승 스님은 "사찰음식은 깨달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제가 가능하나 눈에 보이는 음식을 조절해 몸을 가볍게 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도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뗏다방 포교당 OUT” VS “정상적 포교활동”

전북 18개 불교단체, 26일 마애사 포교원서 항의 집회

전주 지역을 비롯해 각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교원을 개원하고 조상 위패와 원불묘연 불사를 하고 있는 경남 함안 마애사 포교원에 대해 전북지역 신학단체들이 이를 성토했고 나섰다.

전북불교신도회, 전북불교네트워크,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대불청 전북지구, 대불련 전북지구 등 18개 단체 대표자들은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마애사 포교원을 방문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마애사 포교원은 몇 개월 단위로 지역 건물을 임대해 뗏다방식으로 옮겨다니며 위패와 원불을 판매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찰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화전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마애사 포교당의 형태는 비불교적 뗏다방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법당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님이 상주하지도 않으며 단지 임대된 공간에서 노래방 기계와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지역 주민을 현혹시켜 궁극적으로 수백만 원의 위패와 원불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애사가 수 개월전 비불교적 영업 방식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물의로 언론

몇 개월 단위 임대해 옮겨다며

위패 등 판매... "뗏다방식 운영"

"비불교적 행위로 佛心에 상치"

마애사 "근거없는 낭설" 일축

에 보도되자 포교당을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금 포교당을 여는 것은 지역불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불교단체들은 즉각적인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구 본사, 대각회, 조계종 총무원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응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애사 허세창 신도회장과 전



전북불교네트워크 등 18개 단체 대표자들은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마애사 포교원을 방문하고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주 포교원 임종국 문화원장은 "전주 포교당은 예불등 정상적인 포교당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불자들이 생각하는 뗏다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은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마애사 포교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정도 운영하고 있다"며 "100여명의 포교사들이 각 포교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각 포교당은 조석 예불 등 정상적인 포교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불

자들이 마애사의 포교 활동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각 포교당에서 모연된 불사금은 전액 마애사로 입금되고 있고 포교사들에게 일정액의 보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뗏다방 포교당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마애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즉시 철수를 원하는 지역불자들의 요구

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우선 운영하고 그 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애사 포교당은 관세음보살 원불과 조상 위패 봉안 불사금으로 각 120만원과 윤회탈불사 1인당 30만원에 모연하고 있다.

불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진 스님은 "불사금이 부담되면 안하면 된다"며 "그의 일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성복 마애사 종무실장 역시 "불자들의 환불 요구가 있을시 즉각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계종 홍보부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희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제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고 할부, 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유사 포교당의 피해 사례로 제시하며 불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불교계 김장 나눔 지역 소외이웃에 전달

불교·원불교·천주교·개신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이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진안군청 광장에서 '2015 김장김치 나눔 축제'를 펼쳤다.

진성 스님(마이산 탐사 주지)·보경 스님(쌍봉사 주지)·진승 스님(혜인정사 주지)·정해 스님(탐사 총무)을 비롯한 스님들과 태고종 나누우리자발봉사단, 지역불자 등 40여 명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동참해 관내 3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마이산 탐사와 쌍봉사는 각각 300kg씩 김장을 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4대 종단 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김장나눔축회에 동참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군 관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전 전수 범음범패, 빛고을 장엄하다

광주전통불교영산회, 18일 정규 시연회 개최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 영산재'의 시연이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11월 18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1차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에 전승돼온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을 증명법사

로 진행된 시연회에는 광주영산재 범음이수자 혜령 스님, 바리이수자 호산 스님, 작법이수자 월인 스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스님들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행사는 영산재 도량에 부처님과 영가를 청해 모시는 의식인 시연을 시작으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신중자

법, 영가를 부처님의 감모법으로 깨끗이 씻어 드리는 대령관유, 지장청, 신중퇴공, 영가단에 공양을 베푸는 관음시식, 봉송이 3시간 가까이 이어져 장엄함을 더했다.

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영산작법이 전해진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고려 진각국사가 처음 경기도와 호남, 영남에 의식을 전한 것이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지역 영산재의 특징은 가장 힘이 있는 형식을 띤다"고 설명한 뒤 "광주전남지역에 범음범패가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과 이웃, 종교간 화합과 소통에 동참”

순창 사암聯, 24일 한마음 대법회

전국에서 불교계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진 전북 순창에서 지역불교발전과 소통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대법회가 봉행됐다.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는 11월 24일 순창군 문화원에서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대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 대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전주 남교사 원해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순창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황송주 순창군수, 강동원 국회의원, 이기자 순창군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



및 지역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성황을 이루었다. 암도 스님은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건전해야 하며 말은 건실하게 해야 한다"며 "자비나눔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소통과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호남권 신도회 간담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11월 19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제17교구(금산사), 제18교구(백양사), 제19교구(화엄사), 제21교구(송광사), 제22교구(대흥사), 제23교구(관음사), 제24교구(선운사) 신도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5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지 설명, 종단신도조직 현황 및 중앙신도회 주요사업 안내, 교구별 활동 공유, 교구신도회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은 "각 지역 교구신도회가 대부분 창립돼 활동하고 있다. 교구신도회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협의의 거쳐 중앙신도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기ban, 나만의 힐링세계 기ban, 기ban 활용까지 활용 가능, 기ban 활용 수 있는 방법, 기ban 활용 방법, 기ban 활용 방법, 기ban 활용 방법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